

“좋은 인연은 양보와 이해로만 이뤄져”



스님의 쓴소리, 절대 혼자 살지마라
해철 스님 지음
마젠타 펴냄
1만2천원

옥천 대성사 중대장이 해철스님이 결혼을 주제로 한 에세이 <스님의 쓴 소리, 절대 혼자 살지 마라>를 펴냈다.

스님은 결혼중매에 대한 인상실현(?) 많은 베테랑 커플매니저다. 현재까지 1200여쌍 이상을 결혼으로 골인시켰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사는 이곳이 최고의 장소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 어찌든 내게 최고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연을 만났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역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지금 바로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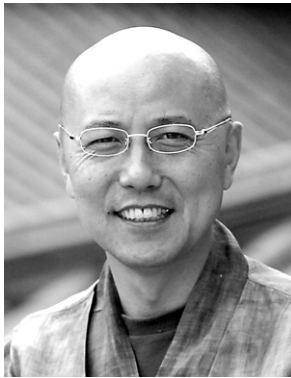
그럼 스님이 생각하는 불교적 인연이란 무엇일까? “불교서 말하는 부부의 연은 1겁의 연인데, 1겁이란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을 때까지 걸리는 무한대의 시간이니,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고 말한다.

커플 멘토라 불리는 해철 스님은 결혼하지

못한 선남선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인연 맺어 주기를 본인의 업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30대 중반에 출가해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결혼 못한 남녀의 사연을 듣고 이런 저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다보니 어느덧 수행의 업이 돼버렸다. 충청북도와 협력해 2005년부터 인터넷 카페 ‘따뜻한 만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법회를 열어왔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결혼은 인생 대역전이 아닙니다. 결혼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까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적인 만남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제되고 작은 것 하나까지 공유할 때 사랑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선남선녀의 따뜻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연기법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이들을 하나 둘 만나게 해준 것이 점점 범위가 커졌습니다. 인연을 못 만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일이 나의 업이자, 시대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최고의 배우자를 기다리며 60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가 그 해 자신의 이상형인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껏 찾아온 이상형이 당신이니 청혼을 받아달라고 청했다니 그 할아버지는 단박에 거절하며 그 할아버지에게 “당신의 이상형은 나지만 나의 이상형은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스님은 평소 이상형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이상적인 사람



현재까지 1200여쌍 중매 골인

선남선녀 만남은 연기법으로 시작

이상형 얻으려면 자신이 이상형 돼야

이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미혼남녀에게 조언한다.

누구나 사랑이란 말은 좋아한다. 그런데 사랑을 조건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 이가 많으니, 사랑이 왔다가도 저만치 달아나는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사랑은 신기투 같은 것이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또한 사랑의 무게는 영혼의 무게에서 측정할 수도 없으며, 그 귀한 것을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정성도 들이지 않고 얻으려 하는지 해철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의 짧은 사랑에 대해 지적한다. “결혼은 계약이며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

다. 한술 더 떠서 결혼은 비즈니스라는 말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결혼 조건이 하나 둘씩 늘게 되자, 급기야 이 데이터를 갖고 사업 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세대에게는 어울리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즈니스적인 접근 보다는 여자와 남자, 즉 음과 양이 만나서, 서로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렇게 전달된 감정을 맞잡고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빛이 보이고, 그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보이던 것들이 가슴으로 느끼다보면 확실히 다가옵니다. 내가 과연 무얼 원하는지를, 그렇게 하다보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의 반려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문을 열어 상대방을 보도록 하세요.”라고 말한다.

해철 스님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결혼을 이루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외로운 인생길을 손잡고 걸어갈 동반자를 열린 마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 해철 스님은?

옥천 대성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불교공뉴스’ 대표를 비롯해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총포원 홍보부장, (사)원문문화복지회 이사, 한국종교인명학회(KCRP) 충청북도 상임대표, 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2013중주세계조형선수권대회 홍보대사 등을 맡고 있다.

초등생 자녀 위한 불교식 교육 지침서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민병직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5천원



현직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쓴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의 부모를 위한 아이 교육서이다. 다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아이 교육의 지침서이다. 저자는 다년간 불교전문교육기관에서 수학하면서 주요 일간지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화려한 경력으로 여러 권의 자녀 교육서와 동화집을 출간한 바 있는 전문 작가이기도 하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를 ‘내 것’이라는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조금만 말을 듣지 않아도 아이를 비난하고 비교하고 훈계하고 꼬치꼬치 따져 묻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

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아이 교육은 시작되어야 함을 깨우쳐 준다. 그러기에 아이 교육은 ‘아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내 아이가 아님을 제대로 자각할 때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해 준다.

아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팽팽한 진리를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대비해서 문제해결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 교육서이다. (반야심경)은 명징하게도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를 알려 주고, 참된 부모의 길을 제시해 주며, 부모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이런 면에서 (반야심경)은 모든 진리를 아우르는 불이법문인 동시에 최고의 아이 교육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준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의 아이는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변하는 까닭이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 김주일 기자

고은 대표 선시 180여 편 묶은 <뫼나> 재출간

뫼나

고은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1만1천원



고은 시인이 1991년 냈던 선(禪)시집 <뫼나>가 문학동네에서 재출간됐다. 시집엔 20여년 전 수록했던 선시에 이후 시인이 쓴 작품까지 총 180여 편이 실렸다.

“얕산에 번개/ 뒷산 우레/ 이 가운데/ 돌맹이 병어리”(시 ‘어느 날’)

시인은 서문에 “오직 선은 마음뿐이다. 이 마음속의 진면목으로만 기존의 세계에 대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선의 목적”이라고 썼다.

20여 년 전 빛을 봤던 시집이지만 이후 그가 여기저기 발표하고 써두었던 선시들까지 두루 넣었으니 거의 새집과 진배없는 책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이탈리아어 등 세계적인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현재

보다 많은 언어들로 번역 가운데 있다. 시인 고은의 저력을 세삼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따지고 보자면 이 시집은 ‘선’의 세상 속에 뿌려진 소금이 아닐까.

굳이 따지자면 총 180여 편의 시를 담았다지만, 고은의 <뫼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시편들로 직조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 편의 시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한 줄의 시가 매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조보다 광대한 사유에 하이쿠보다 자유로운 품격으로 붓 든 자 아인인가 붓 든 자 노인인가 그 사이를 가능할 바 없이 오고 가는 시인은 우주 만물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기미들을 살피고, 그 안에서 돈오의 알곡들을 골라내기에 몹시도 분주한 모양새다. 때론 강권하고 때론 청유하고 때론 질문하고 때론 감탄하면서 시인은 마치 세상에 처음 온 듯, 그 처음으로 호기심밖에 가진 게 없다는 듯 걸음마다 두리번거림을 한 찰씩으로 삼고 있다.

이 말랑말랑한 언어들을 시인의 일갈이라 귀 기울이게 되는 건 시집 군데군데 들어 있는 시인의 그림을 통해서다. 붓 끝에 힘이 들었으나 제대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김주일 기자

명리(사주)학 학인 모집

당 문수불교문화원에서는 2013년 명리학인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반(6개월)
음양론, 오행론, 사주의 구성, 합충법, 원진, 파, 해, 절기론, 대운법, 암장법, 공망, 당사주실무
 - 나. 중급반(6개월)
육친법, 남과여의 육친적용, 포태법, 12신살론, 왕, 상, 휴, 수, 사, 조후론, 흉살, 길신다. 고급반(실전교육)
격곡론, 용신법, 통변법이론과 실무, 풍수지리이론, 작명이론
- 강의 특징: 원리위주, 이해위주, 한글위주, 통변위주 ※
- 개강일시
 - 가. 개강일: 2013년 3월 13일(수요일)
 - 나. 수업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 입학자격: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명리학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수강료: 학기당 30만원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 원에서 교부)
- 강주: 현조(문수정사 주지) 구미지역 사회 교육협의회 명리학 강의(7학기 강의) 구미 노인대학 특강, 김천 도서관 특강
- 접수기간: 2013년 3월 1일 ~ 13일까지(선착순 20명 이내)
-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23-16번지(지하철 1호선 반월당 2번 출구 앞)
연락처 010-2509-5535

문수정사 문수불교문화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충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연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절교육 절수행 깨달음

700만 배 절수행 청견스님 노하우

완벽한 표정 + 자세 + 동작 + 부처님호흡법대입 + 동작알아차림 + 염불알아차림

전신의 찌크라 열어드리고 숨통 뚫어드려 우주 태양의 氣를 받고 지구 땅의 기운 모아 자동으로 수승화강 철해야 숨고요 마음고요로 처절로 몸 나쁜기운, 맘 나쁜 생각 속속 빠져나가는 완전힐링 심신건강 세방, 진짜 힐링, 만병통치수

숨차고, 험퍽거리며 상기되고 힘빠지며 피곤하고 몸이 냉해지면 철을 잘못 하는 것

◎ 장소 : 울산시 언양읍 남부리 81-1
KTX 울산역 3분, 서울산 IC 3분, 언양버스터미널 1분

홈페이지: www.법왕정사.net

울산 언양법당 : 052)254-7768
대구법당 : 053)743-0063